

# "스마트홈 시장 2025년까지 CAGR 11.6% 기록" 마켓앤마켓 보고서

IoT (/t13931/IoT) / 디지털 디바이스 (/t22076/디지털 디바이스) / 비즈니스경제 (/t30/비즈니스경제) / 소비자IT (/t1138/소비자IT)

CIO KR

전 세계 스마트홈 관련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1.6%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기록하며 성장할 전망이다. 마켓앤마켓이 ‘코로나19에 의한 스마트홈 시장 영향 분석(Smart Home Market with COVID-19 Impact Analysis) (<https://www.marketsandmarkets.com/PressReleases/global-smart-homes-market.asp>)’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마트홈 관련 시장 규모가 2020년 783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35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홈 시장의 견인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는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 개발도상국에서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 원격 주택 모니터링 중요성 증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에 대한 필요성 증가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번 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판매가 5-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코로나19에 의한 스마트홈 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홈 시장에 2025년까지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353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자료 : 마켓앤마켓)

이번 보고서는 스마트폰 관련 시장을 제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제품별 시장은 조명 제어, 보안 및 액세스 제어, HVAC(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엔터테인먼트, 홈 헬스 케어 제품으로 구분했고, 스마트 스피커가 예측 기간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스마트홈 관련 제품과 결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홈 관련 장치나 서비스를 사용자와 연결해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명 제어 시장의 경우 데이터 연결 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통해, 유선 및 무선으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다. 조명에 데이터 연결 및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면, 단순히 전원을 켜고 끄는 것에서부터 밝기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조광기, 타이머, 일광 센서 같은 조명 관련 제품들이 이러한 제품군에 속한다.

오디오 및 비디오 관련 장치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멀티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 플러그나 허브 등으로

구성된 기타제어 장치 시장은, 예측 기간 동안 스마트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다양한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위험 제거와 원활한 작동 보장은 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지역별로는 아태지역이 스마트홈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한국, 중국 등과 같은 아태지역 국가에서 스마트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조명 제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제어 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 스마트홈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스마트홈 시장을 이끄는 주요 기업으로는 아일랜드의 존슨 컨트롤 인터내셔널(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미국의 하니웰(Honeywell International, Inc.), 독일의 지멘스(Siemens AG)가 있다. ciokr@idg.co.kr

인쇄